

주민참여 제안사업 온라인투표 실시

전북도교육청, 공모 예비심사 통과한 70개 사업 대상 9월 4일~13일... 고득점순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주민참여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126개 사업 중 예비심사를 통과한 70개 사업을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온라인투표는 오는 9월 4일부터 13일 까지 10일간 실시하고 이달 중 주민참

여예산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도민 누구나 PC 또는 모바일(휴대폰)을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주민참여 제안사업 온라인 투표시스템 (<http://yesan.jbe.go.kr>)을 직접 접속하거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 단원학교 홈페이지 팝업 알림창에서 '투표참여'를 클릭해도 접속이 가능하다. 다만, 중복참여 방지를 위해 휴대폰 문자인증을 실시한다. 온라인 투표는 1인 9표까지 투표가 가능하며 분야별 3표씩 투표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 제안

사업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도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확인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시범설치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12개 초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31일 도교육청은 대기 중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교실 유입으로 실내 공기질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어 주요 도로나 산업단지 인근의 12개 초등학교를 선정해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기정화장치는 일반 교실에 설치하게 되며 1교당 5,000만원을 지원, 12개 초등학교에 총 6억원을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공기정화장치는 기계식 환기장치, 냉난방기에 필터를 설치하거나 공기청정기, 창문형 환기장치 등 학교건축물의 특징에 따라 선택·설치하게 된다.

차량 통행이 많은 학교, 산업단지 인접 학교, 지난해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오염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9월 초까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대상학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며 이들 학교에 대해선 기기 설치 후 별도의 공기정화장치 효율성 평가도 실시한다. /정해은 기자

기계설비건설협회, 도교육청에 장학금 500만원 전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전북도회가 지난 31일 전북도교육청에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북도회 손성덕 회장 등 임원 5명은 이날 오후 3시 도교육청을 방문, 김승환 교육감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도회는 전북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장학금고를 통해 학업이 우수한 학생을 후원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해마다 사랑의 장학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2005년부터 올해까지 13년 동안 전달한 장학기금만 총 5,100만원에 달한다. /정해은 기자



지난 3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진행된 한국어 연수과정 여름 학기에 외국인 학생 388명이 참여해 252명이 수료했다. 이 중 92명이 전북대 학위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다.

전북대 한국어 학당, 대학 알리는 첨병

여름학기 252명 수료 중 92명 학부 진학 예정... 유학생 유치 선순환 효과

전북대학교 언어교육부 한국어 학당이 진행하는 한국어 연수과정은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대학의 우수성을 알리고 나아가 유학생 유치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31일 전북대에 따르면 지난 6월 20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진행된 한국어 연수과정 여름 학기에 중국과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방글라데시, 네팔,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라오스, 라트비아, 볼리브, 부탄, 온두라스, 잠비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388명이 참여해 252명이 수료했다. 이 중 92명이 전북대 학위과정에 진학할 예정이다.

전북대는 이들에게 대학에서 함께 나눈 추억을 공유하고 대학을 오래 기억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9일 오

후 수료생들을 모두 초청해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수준별로 나뉜 각 반별로 1등 한 25명의 연수생에게 우수상을, 200시간의 연수시간 동안 단 한 번의 지각 및 결석이 없는 50명의 성실한 연수생에게 개근상이 수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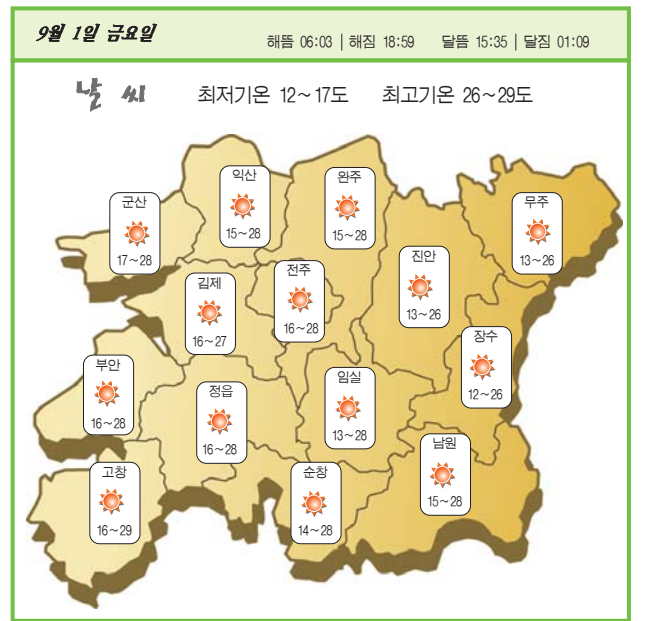
또한 각 국가별로 한국 유학생생활에 대한 소감 등을 나눴고 여름학기 동안 수업과 문화체험 등을 담은 동영상 제작해 연수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했다.

지난 2016년 가을학기부터 현재까지 4학기 동안 한국어 연수과정에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2017년 2학기 본교 산업디자인학과 학부과정에 합격한 4급반 정근봉 학생(중국)은 "전북대는 나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도와준 인생의 중요한 곳"이라며 "한국어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었기에 학부과정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교우 언어교육부본부장은 "낮선 환경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연수생 한명 한명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학업과 한국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언어교육부 한국어학당은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4학기에 걸쳐 한국어 연수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가을학기 제1기 한국어 연수생 40명의 입학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208명의 연수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교육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동시 이유리 '학교'

포스터 조아현 '검은 블라인드...'

도교육청, 청림 공모전 수상작 발표

'최우수상' 슬로건 양지영 · 포스터 조아현 · 동시 이유리

전라북도교육청은 청림 문화 확산과 전북교육가족이 제작한 특색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확보를 위해 개최한 '2017 청림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분야별 전문심사위원들이 심사한 결과 각 분야별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6편 등 총 30편을 우수작품으로 선정했다.

이번 심사결과 슬로건 분야는 양지영(전주중앙여고) 학생의 '청탁은

씩씩쭉쭉! 청림은 차곡차곡!', 포스터 분야는 조아현(군산남고) 학생의 '검은 블라인드 걷어내고 당당하게!', 동시 분야는 이유리(군산미장초) 학생의 '학교'가 분야별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각 분야별로 우수상, 장려상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품들은 9월 5일 열리는 청림누리문화제에 전시되며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게시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14살 소녀들

어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일곱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 교육 개혁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윤서,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령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선행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시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